

전시 EXHIBITION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

PROJECT HASHTAG 2021



http://afterneworder.com - home of After New Order...

From here you can:

- [Browse After New Order...](#)
- [Browse What's Happening?](#)
- [Learn about what we've learned](#)
- [Learn more about After New Order...](#)

http://afterneworder.com - home of After New Order...

From here you can:

- [Browse After New Order...](#)
- [Browse What's Happening?](#)
- [Learn about what we've learned](#)
- [Learn more about After New Order...](#)

http://afterneworde

From here you can:

- [Browse After New Order...](#)
- [Browse What's Happening?](#)
- [Learn about what we've learned](#)
- [Learn more about After New 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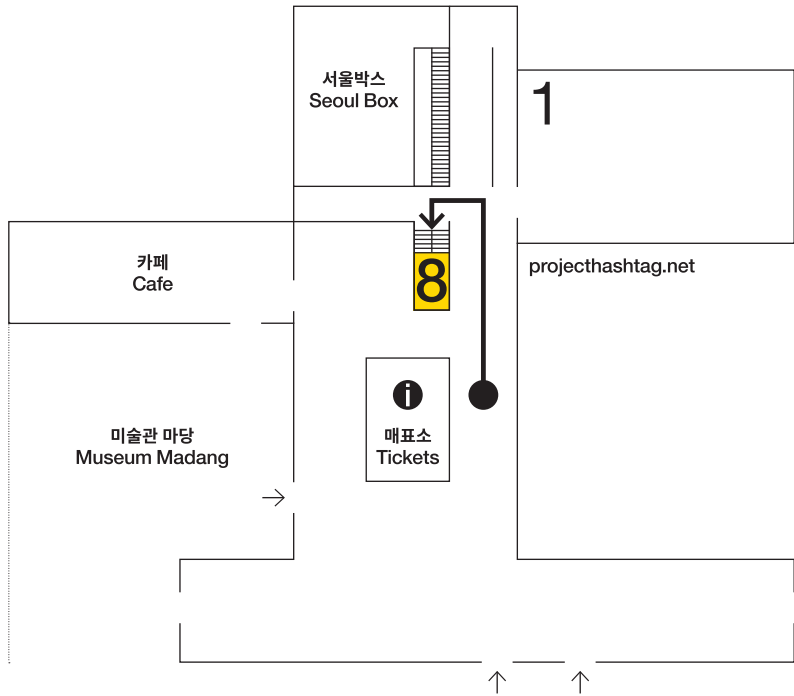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8 전시실
MMCA Seoul Gallery 8

2021.11.3.-2022.2.6.
www.mmca.go.kr



1F



«프로젝트 해시태그»에 관하여

사업명

«프로젝트 해시태그»

모집인원

매년 2팀 선정

모집방향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여 무작위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해시태그(#)처럼 전통적인 시각예술과 시간예술의 플랫폼에 도전하여 충돌하고, 마주치고, 열리는 경계를 실험하는 서로 다른 분야의 창작자, 기획자, 연구자, 기술자 간의 협업 작업

심사방법

서류심사(1차) 및 참여자 인터뷰(2차)

지원내역

- 팀당 창작지원금 3천만원
- 작품제작 및 회의 등을 위한 공동작업실 1팀당 1실 (창동스튜디오)
- 프로덕션 기획 및 최종결과물 서울관 쇼케이스 기획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현대자동차

공식홈페이지

projecthashtag.net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 심사위원

1차

김용주(국립현대미술관 디자인경력관)
 성용희(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사빈(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2차

레브 마노비치(CUNY 교수, 미디어 이론가)
 히토 슈타이얼(베를린 예술대학 교수, 미디어 아티스트)
 김준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이추영(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홍이지(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About PROJECT HASHTAG

Project Title

PROJECT HASHTAG

Participants

Two teams selected every year

Objectives

Hashtags enable us to update and generate new context from random content. We are looking for collaborative works of diverse fields among creators, curators, researchers, and engineers who desire to create new context by challenging traditional visual perception and the linear time-based logic while experimenting boundaries we may encounter, collide, and open.

Screening Process

Review of applications (1st round) and Interview (2nd round)

Support

- A grant of KRW 30 million per team for production
- A studio per team for production and meeting (Changdong Studio)
- Showcase in MMCA Seoul

Organized by

MMCA

In Partnership with

Hyundai Motor Company

Official website

projecthashtag.net

PROJECT HASHTAG 2021 Evaluation Committee

1st Round

Kim Yong-ju (MMCA Senior Designer)
 Sung Yong-hee (MMCA Curator)
 Lee Sabin (MMCA Curator)

2nd Round

Lev Manovich (Professor of CUNY, Media Theorist)
 Hito Steyerl (Professor of the Berlin University of the Art, Media Artist)
 Gim Jun-gi (MMCA Chief Curator)
 Lee Chu-young (MMCA Senior Curator)
 Hong Leeji (MMCA Curator)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

국립현대미술관 공모사업인 «프로젝트 해시태그»는 기존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기획하던 시간-중심적인 예술 형태나 시간-중심적인 예술 형식을 넘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실험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 간의 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공모사업의 명칭 “해시태그(#)”는 소셜 플랫폼에서 # 와 주제를 붙이면 서로 전혀 다른 글과 포스팅에서 공통 주제를 엮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글쓰기 방식에서 따온 것으로, 서로 관계없는 무작위의 글들 속에서 무한대수의 맥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한다.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은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5년간 진행되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사업의 두번째 쇼케이스로서 2019년 선정된 팀 **강남버그**와 **서울퀴어컬렉티브**에 이어 팀 **새로운 질서 그 후...**와 **더 덕 어몽 어스**가 선정되어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은 웹을 둘러싼 경험과 환경의 진화에 공명하여 빠르게 변화해가는 인간성에 관한 MZ세대 작가들의 고민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안에서의 생활이 실제 세계에서의 삶을 전복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더욱 더 격렬하게 웃고, 울고, 즐기며,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일상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온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누가 지키고, 누가 만들고, 누가 접속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온라인에서 실행자들인가, 구경꾼들에 불과할까? 웹이라는 익명의 경계 없는 공간이 인간적인 가치를 왜곡하거나 뒤흔드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 웹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현실세계의 인간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같은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새로운 질서와 가치가 지배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가치의 확장과 왜곡을 바라보고 이를 재료로 실험적인 시도를 한다.

새로운 질서 그 후... 팀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초창기 인터넷의 유토피아적 기대가 현재의 온라인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점검하는 작업을 한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웹 접근성, 거대기업 플랫폼으로부터의 자유로움, 환경친화성 등의 기술 윤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올해의웹사이트상**과 **#국립대체미술관**, **#마이크로데이터센터** 등의 가상세계를 구축한다. 한편으로, 이들은 전시공간에서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와 웹 공간의 “비인간적인 스케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설치들을 함께 펼친다.

더 덕 어몽 어스 팀은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버컬처에 주목하여 익명의 서버컬처가 폭발적으로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인간적인 욕망의 발현을 고민한다. 이들은 가상세계에서 욕망과 소비, 죽음의 순환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픽셀오리를 내세워서 먹방과 같은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콘텐츠들을 상징하는 **#후즈더덕어몽어스?**와 성욕과 식욕이 오버랩되는 웹소설 **#오늘은너를먹고싶어** 등을 선보인다. 특히 웹소설 **#오늘은너를먹고싶어**는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전시 기간 중 연재하면서 스낵컬처와 전시를 연계하여 가벼운 형식으로 종차별주의, 아비투스, 소수자이론 등의 주제를 풀어낼 예정이다.

전시는 «프로젝트 해시태그» 공식 홈페이지 projecthashtag.net에서 또 다른 층위로 진행된다. 이 공간은 **#올해의웹사이트상**, **#국립대체미술관**, **#무슨일사전**, **#무슨일선집**, **#오늘은너를먹고싶어**, **#에코에코-에코에코** 인스타그램과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하이퍼텍스트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작가가 직접 뽑은 주제별 해시태그에 따라 작품을 재배치하여 새로운 맥락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홈페이지는 인터뷰, 작가 노트와 프로덕션 과정, 워크샵 등 작업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얽혀져서 다양한 층위로 작업을 감상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1»의 두 팀이 제시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가치의 확장과 왜곡은 1985년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인간 신체의 혼성성-확장과 왜곡을 선언하였던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의 혁명적인 <사이보그 선언(A Cyborg Manifesto)>의 연속선상에 있다. 한편, 이러한 실험적 고민의 상상력과 대안모색은 프로젝트의 심사에 참여하였던 히토 슈타이어(Hito Steyerl)이 짚어낸 것처럼 자본과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공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번 전시는 그 실천적인 모색을 통하여 새로운 세대의 미래적 어젠다들을 선점할 것이다.

— 이수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PROJECT HASHTAG 2021

PROJECT HASHTAG is an open call project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supporting all experimenting platforms of curating and exhibiting art, challenging the traditional visuality, and proposing collaborations among young creators from diverse disciplines. Hashtag(#) is an innovative way to connect unrelated writings or posts on social media platforms simply by adding subjects using # and gives us infinite number of cases to find and create context from random writings. *PROJECT HASHTAG* is a five-year project sponsored by Hyundai Motor Company and presented its first showcase of works of **GANGNAMBUG** and **Seoul Queer Collective** in 2019. This year we invite you to the showcase for newly selected teams for *PROJECT HASHTAG 2021: After New Order...* and **The Duck Among Us**.

PROJECT HASHTAG 2021 reflects concerns of Gen Z and millennial artists regarding online experiences and environments that are heavily influencing and rapidly reshaping our humanity. The pandemic has moved our lives online and now we laugh, cry, enjoy, and get angry more expressively than ever in the online space. But who is protecting, creating, and being able to access this online space that became so important to us? Are we players or mere bystanders of what is happening online? Isn't this anonymous and boundless space called “the web” distorting or disturbing human values? Are our feelings expressed on the web the same as what we feel in the real world? To answer these questions, participating artists observe how traditional human values are expanded or distorted in the virtual space under a new order and new values and make experimental attempts based on their observations.

After New Order... asks if utopian qualities we had expected from the early internet such as freedom, openness, and ethical values have been realized in the current online world and reviews directions we should take to promote them. To ensure web accessibility, independence from dominating platforms, and eco-friendliness, artists constructed virtual worlds such as **#KoreaWebsitePrize**, **#AltMMCA**, and **#MicroDataCenter**, from both techn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You can also meet visual and physical installations in the

exhibition hall and get a sense of the “beyond-human scale” of web space data.

The Duck Among Us focuses on subculture actively engaging with online platforms and looks into human desires that are expressed openly within anonymous subculture contexts. Artists present pixel ducks as a symbol of the cycle of desire, consumption, and death as they are easily consumed and discarded. Featuring the duck, **#WhosTheDuckAmongUs?** depicts provocative and instant content like Mukbang (eating broadcasts), while a web novel **#IFeelLikeEatingYouToday** implies one's appetite overlapping with sex drive. This web novel employs Snack Culture (a newly coined term in Korea referring to quick media consumption) as a means to explore speciesism, habitus, and minority politics in a casual way together with the exhibition. You can read it on KakaoPag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The web enabled the art works in the exhibit to stay open-ended, eschewing to produce final terms. The official website projecthashtag.net connects the on-going online projects using hypertext: **#KoreaWebsitePrize**; **#AltMMCA**; **#WhatsHappeningDictionary**; **#WhatsHappeningSelection**; **#IFeelLikeEatingYouToday**; **#EgoEco-EcoEcho**. Moreover, the website generates transmuting contexts by sorting out the artworks by hashtags provided by the artists. Ushered by the hashtags, users can find further details, on-going process, and stories about the artworks which increases the doors to comprehend the works exponentially.

The two teams' efforts to address the expansion and distortion of human values are in line with Donna Haraway's *A Cyborg Manifesto*, a groundbreaking essay published in 1985, that expanded the concept of the human body emphasizing its hybridity driven by technology. As Hito Steyerl who evaluated the applications pointed out, such imagination and alternatives from experimenting efforts are only possible in the public realm free from the capital and political power, and we hope this exhibition initiates future-oriented agenda for the new generation through their works.

— Sooyon Lee (MMCA Curator)

새로운 질서 그 후... After New Order...

윤충근, 기예림, 남선미,
이소현, 이지수
Yoon Choong-geun,
Ki Yelim, Nam Seon-mi,
Lee So-hyeon, Lee Jisu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새로운 질서 그 후...**는 해시태그의 근원지인 트위터에서 사용자에게 묻는 기본 질문을 빌려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 웹(World Wide Web)의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핀다. ‘개방, 공유, 참여’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 웹은 국가나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여전히 불평등한 공간으로 남아 사회의 차별적 양상을 심화하고 거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웹 생태계는 사용자의 주체적 정보 습득을 제한하며 웹을 수동적이고 닫힌 공간으로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365일 가동 중인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새로운 질서 그 후...**는 웹이 초래하는 문제를 웹 안의 윤리적 차원과 웹 밖의 물리적 차원에서 살펴봄에 이에 대한 실천과 의문을 웹사이트(afterneworder.com), 설치, 워크숍, 출판 등 일곱 개의 프로젝트로 구체화한다.

“What’s happening?” **After New Order...** borrows the default question on Twitter, the platform the use of # was first introduced, to examine what is happening today around the World Wide Web. Although the web initially claimed to be “open, sharing, and participatory,” the original purpose of it is not being maintained and even expanding the inequity depends on the users’ condition. In the core of it, there are big platforms that limit users’ autonomy by making it a passive and exclusive space. This issue does not stay internal but is making harms to the external world. In operating the web, numerous data centers are running 24/7 to process data while emitting hea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Web users overlook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data and its effect on the environment. **After New Order...** explores problems both from the eth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 by questioning through seven projects in forms of website(afterneworder.com), installation, workshop, and publication.

#올해의웹사이트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시상 제도 <올해의 작가상>을 차용해 오늘날 ‘주목할 만한’ 웹사이트는 무엇인지 질문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본 행사는 공모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를 지원받고 12월 말 예정인 시상식에서 ‘올해의 웹사이트’를 발표한다. #올해의웹사이트상은 웹페이지 기본 구조를 정의하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의미론적 쓰임을 수상 기준으로 삼는다.
afterneworder.com/koreawebsiteprize

#국립대체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대체 텍스트(Alt Text)로 경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미술관 소장품 7,585점의 대체 텍스트를 직접 작성하고, 대체 텍스트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안적인 미술관을 웹사이트로 선보인다. 또한 전시실에는 방대한 양의 대체 텍스트를 개방형 수장고 형식으로 전시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누구나 미술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술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afterneworder.com/altmmca

#마이크로데이터센터는 일반적으로 거대한 부지에 대규모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규모를 축소해 보여줌으로써 데이터 사용이 실제 환경과 연관된 문제임을 가시화한다. 동시에 #마이크로데이터센터의 물리적 특성과 구동 과정 등을 설명하는 문장을 송출하여 지구상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설의 실존을 상기한다.
afterneworder.com/microdatacenter

#벤트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해저 데이터 센터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나틱(Project Natick)’의 실험 단계를 되짚으며 인터넷 네트워크를 끊김 없이 기능하게 하는 비인간 생태계에 관한 허구적 내러티브를 전개한다. 음모론의 발화 방식을 차용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한편, 발췌한 몇 문장을 각인한 조각을 전시장 곳곳에 건축적 요소와 같이 위장하여 설치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체 단위의 디지털 인프라 정책이 수반하는 환경 문제와 책임 주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afterneworder.com/vent

#대체텍스트워크숍은 대체 텍스트를 작성할 때 마주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규율 수립 필요성과 이에 관한 논의를 워크숍의 형태로 풀어낸다. 전시 기간 중 진행되는 워크숍에서 발생한 질문과 결과물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며, 여기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유관 산업 전문가의 인터뷰를 함께 실어 논의를 다각화한다.
afterneworder.com/alttextworkshop

#무슨일사전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용어와 개념, 글과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웹사이트로 프로젝트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도구이자 외연을 넓히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afterneworder.com/whdictionary

#무슨일선집은 웹의 기본 가치, 웹 접근성, 사용자 자율성, 안티 플랫폼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에 주목해 웹을 둘러싸고 있는 해의 담론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행하는 출판물로,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복기하고 웹에 관한 담론을 확산하고자 한다.
afterneworder.com/whselection

afterneworder.com은 **새로운 질서 그 후...**의 웹사이트이다. 이 형식은 1989년, 팀 버너스 리 경이 만든 세계 최초의 웹사이트,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웹사이트(info.cern.ch)를 차용한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웹의 핵심적인 기능인 하이퍼링크를 사용해 작동한다. 하이퍼링크를 표시하는 파란색 글씨를 포함해 글씨 크기, 들어쓰기 등의 시각적 형식은 HTML 언어에 탑재한 기본 값이다.

#KoreaWebsitePrize named after the award Korea Artist Prize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event, which anyone can participate in, will receive applications for candidates through the website and announce the website of the year at the awards ceremony in late December. #KoreaWebsitePrize counts for the semantic use of HTML, a markup language that defines the basic structure of web pages. afterneworder.com/koreawebsiteprize

#AltMMCA points out that the current MMCA website does not fully provide alt text. **After New Order...** created a website that provides alt texts for the images of 7,585 on MMCA website. In the exhibition hall, the list of alt text will be installed in a form of visible storage. It reveals the number of the museum collection that had been inaccessible online. This project asks what museums should do to make artworks accessible to everyone online. afterneworder.com/altmmca

#MicroDataCenter is a miniature data center, which in reality would require a vast site and large-scale operation. It visualizes the actual connection between the use of data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meantime, it also displays sentences about the features and operation process of the data center, reminding that there are numerous data processing facilities worldwide. afterneworder.com/microdatacenter

#Vent retraces the experimental phase of the undersea data center development project Project Natick, which Microsoft has been promoting since 2014, and develops a fictional narrative about a non-human ecosystem that enables the Internet network to function seamlessly. A scenario that borrows the utterance of a conspiracy theory will be posted on the website, while sculptures engraved with a few excerpts are installed disguising as architectural elements throughout the exhibition hall.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responsible party accompanying national and corporate-level digital infrastructure policies. afterneworder.com/vent

#AltTextWorkshop gives a chance to experience the practical issues one would face when writing Alt-text. In the workshop, **After New Order...** will discuss the need of setting rules in institutional level. To diversify the discussion, questions and results arising from the workshop will be shared on the website with the interviews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experts in visual aids. afterneworder.com/alttextworkshop

#WhatsHappeningDictionary is a website which classifies the terms that appear in collected writings and concepts in each project. It works as a search engine in the exhibition venue to suppor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ntire process. afterneworder.com/whdictionary

#WhatsHappeningSelection is a publication project that translates international discourses in Korean based on four keywords: basic values of the web, accessibility, user autonomy, and anti-platform. It aims to review the concepts of openness, sharing, and particip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discourses. afterneworder.com/whselection

afterneworder.com is the website of **After New Order....** It borrows the form of CERN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s website which is the world's first website (info.cern.ch) created by Tim Berners-Lee. This website operates with hyperlink, the core function of the web. The visual elements of the site such as hyperlinks marked as blue, text sizes and indents are the inherent default setting of HTML.

더 덕 어몽 어스 The Duck Among Us

신희정, 이가영,
정만근, 손정아
Shin Hee-jung,
Lee Ga-Young,
Jeong Man-Keun,
Son Jung-Ah

인격과 노동에 관한 전통적 가치가 붕괴하고 디지털의 관점에서 재정의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유하는가? 역병과 지구 온난화에서부터, 주식 벼락거지와 같은 디지털 혼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죽음/소비의 순환고리에 이르렀다. **더 덕 어몽 어스**는 이 순환고리의 원인이자,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으로서의 입에 집중한다. 박쥐를 먹고, 오리의 간을 비대하게 만들어 먹으며 스스로를 아프게 만드는 입. 침이 튀길까 마스크로 가려지는 입. 산소를 소비해 보잘것 없는 소리와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입. **더 덕 어몽 어스**는 입의 허무한 감각을 뛰어넘기 위한 작지만 꾸준한 입의 실천을 제안하고, 소비의 공회전을 강화시키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상상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낸다. 프로젝트는 뮤직비디오와 웹소설, 인스타그램 포스팅이라는 온라인 하위문화에서 시작되며, 인터넷 속을 활보하는 상상력은 퍼포먼스, 영상 설치, 출판물의 형식으로 오프라인에 호출된다.

Traditional values of human decency and labor are no longer taken seriously and being redefined from the digital perspective? From plagues and global warming to digital chaos that created nouveau pauvre in the stock market, we have reached the cycle of death and consumption. **The Duck Among Us** focuses on our "mouths" not only as a cause of this vicious cycle but also as a possible solution to free ourselves from it. Because our mouths are: what led us to take in bat meats, swallow enlarged duck liver, and harm our bodies; what should be covered with a mask to prevent the spread of germs; and what make worthless sound and breathe out carbon dioxide from oxygen. **The Duck Among Us** proposes simple but steady steps to overcome this sense of futility and creates a festival inviting us to an imaginative area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spired by online subculture in the form of music videos, web novels, and Instagram posts, the project brings these online imaginations into the real world through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publication.

#후즈더덕어몽어스?는 허무와 혼란이 뒤섞인 살덩이를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 설치 (협업: 조희성 작가)로 풀어낸다. 입 안에서 사르르 녹는 살덩이는 가법다. 포만감을 찾기 위해 뒤뚱거리며 배회하던 오리는 빛나는 별빛으로 뛰어든다.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는 오리의 허무한 마음과,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늘 미끄러지고 마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여준다. 오프라인으로 소환된 오리는 어색하고 초라하게 서서 살덩이를 관객과 나눈다.

#오늘은너를먹고싶어는 비약적으로 팽창하는 한국의 웹 콘텐츠인 웹소설의 형식을 차용하여 전시와 웹의 엔터테인먼트에서 발생하는 파급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약 120화 분량의 웹소설 안에서 종차별주의, 아비투스, 소수자이론과 같은 순수 미술의 장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담론들과 미래 SF, 첩보물, 계급투쟁, 로맨스와 같은 스낵 컬처의 키워드들을 함께 녹임으로써 기존 미술 형식에 대한 팝아트적 확장을 모색한다. 발생하는 수익 전액은 환경 단체에 기부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오리와의 로맨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환원될 예정이며, 현장 전시는 디지털 언어를 현실의 작가의 신체와 함께 제시하는 팬싸인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8070706>

#에고에코-에코에코(EgoEco-EcoEcho)는 웹 플랫폼에 범람하는 짧은 영상들을 모방하여 과도한 효율과 자극적인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소셜 네트워크의 모순을 파고든다. 1분 미만의 영상 클립은 대량으로 생산됨에 따라 개별적인 의미가 함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전시 공간에서 송출되는 화면은 개인주의 (Egoistic), 친환경 (Eco-friendly), 경제성 (Economical)의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세 개의 서로 다른 영상의 혼합이다. 작가는 이 무의미한 섞임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관객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덕어몽어아트북은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넘나드는 짤(meme)이 갖고 있는 해학과 뒤틀림에 주목하여 작가, 비평가, 연구자의 글과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문화와 신체성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시도한다. 독립출판사 스튜디오 에포케와 협업하여 공장식 생산 방식과는 다른 수작업이 주는 영성함, 오류와 오차의 미학에 주목하는 한편, 대마실, 공기름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적 출판 방식을 실험하고자 한다.

#WhosTheDuckAmongUs? illustrates a lump of flesh with a taste of futility and chaos using music video,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in collaboration with Cho Hee-Sung). A lump of flesh melting in one's mouth is lightweight. A duck that was waddling looking for satiety jumps into shining starlight. The music video and performance show a sense of futility the duck feels and its chaotic state of slipping over and over despite its effort to escape from it. Now, the duck is summoned to the real world to share its flesh with audiences while at the same time feeling shabby and embarrassed.

#IFeelLikeEatingYouToday takes the form of web novels, rapidly growing content in Korea, to see if the impact of entertainment involving exhibition and web content can serve as a drive to solve social problems. About 120 episodes of the novel contain discourse repeatedly reproduced in the fine art scene including speciesism, habitus, and minority politics, which are weaved together with a common theme for quick media consumption such as futuristic SF, spy, class strife, and romance to pursue pop-artesque form. All revenues generated from the publication will be donated to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hoping to contribute to making a better world. The offline exhibition will be held as a fan-signing event with the presence of artists sharing digital texts.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8070706>

#EgoEco-EcoEcho imitates short video footages thriving on the web platform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rony of social media which forces us to accept efficiency and beauty however they are excessive and provocative. Video clips of less than one minute are mass-produced and thus lose individual meaning. The video is a random mixture of moving-images captured from three social phenomena: egoistic, eco-friendly, economical. The artists expect the meaningless mixed imagery serve as a way of echoing in the digital world.

#TheDuckAmongUsArtBook focuses on humor and twist within memes consumed across physical and virtual spaces. Artists attempt to expand the discussion on online culture and corporeality based on texts and images they collected from writers, critics, and researchers. In collaboration with independent publishing house Epoche, they also experiment with an eco-friendly publishing process using hemp thread and soybean oil and emphasizes the aesthetics of error, mistake, and inaccuracy of handcrafted process in contrast to factory-made production.

관람시간

화, 목, 금, 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 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입장료

서울관 통합 관람권 4,000원
수, 토 야간개장 시 무료관람(오후 6-9시)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운영시간(매일) 오전 8시-오후 11시
시간당 3,000원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현대자동차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03062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0(소격동 165)
+82 2 3701 9500

Opening Hours

Tue, Thu, Fri, Sun: 10:00-18:00
Wed, Sat: 10:00-21:00

Admission Fee

Entrance Ticket: 4,000won
Under 24 or over 65: Free
Every Wed & Sat 18:00-21:00: Free

Parking

Daily Hours: 08:00-23:00
3,000won per hour

Organized b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In partnership with

Hyundai Motor Compan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03062) 3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165, Sogyeok-dong)
+82 2 3701 9500

www.mmca.go.kr
twitter.com/mmcakorea
facebook.com/mmcakorea
instagram.com/mmcakorea
youtube.com/mmcakorea
tv.naver.com/mmca